

그림자 없는 행위 '열반 도달'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32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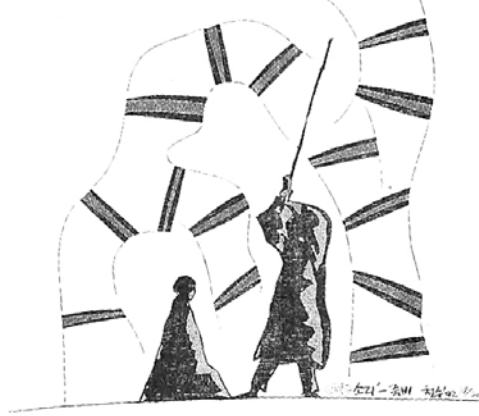
불교란 무엇인가 ⑤

우리는 늘상 주제·객체, 원인·결과, 논리·비논리, 이것·저것의 이분법적 구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순 평가를 넘어서야 합니다. 선 사들은 논리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제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논리를 초월할 때 비로소 도달하는 진리를 깨우치게 유도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붓다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스승은, "뜰살의 잣나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효과를 거둔 아주 비논리적인 대답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보리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었습니다. 스승은 "마삼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은 사실은 즉각적으로 영감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대신 때리거나 고향칠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물음에 대하여 스승은 흔히 폭력으로 대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리달마에 대해, 지금은 거의 전설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역하신 하고 있는 보리달마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 제자되기를 청하며 그의 허락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왼팔을 끊어 자신의 단심(丹心)의 증거로 스승께 올렸습니다. 그로서는 심사숙고 끝에 그런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스승은 그것마저도 환영(환영)에 속하는 물질세계의 일이라고 개외치 않았습다. 그러나 이윽고 그를 불러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을 가리얏혀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네 마음을 가리얏혀주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제자는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못찾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에, 제 아무리 마음을 찾아도 만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즉각 진리를 깨쳤습니다. 그는 자아란 존재가 없다는 것과 모든 것이 실체를 결여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선불교의 핵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불교처럼, 신앙을 구축하는 교리를 표명하지 않는 종교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불교를 나와 무관한 타문화로 볼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되

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는 사람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데, 그 생각이란 우리의 죄와 그 속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본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서구인을 가장 사로잡는 테마인 죄의식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幻影)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불교는 우리 삶의 본질을 직시하려고 가르칩니다. 만일 제가 불교승이라면 이 순간 이제 막 살기 시작했다고 생각



◇영동한 대담을 하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논리를 넘어선 곳에서 삶의 본질을 직시하려는 가르침이 선불교의 특징이라고 파악한 보르헤스는 이 때문에 인류에 가장 숭고한 종교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비행이라고 강조했다. 사인은 이철수씨의 편화 '소리, 죽비'.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을 가져와라" "못찾겠습니다" 삶의 본질 직시하면 우주도 '꿈'

"불교는 인류 구원의 문화유산 모두 정신의 자양분 삼으십시오"

하했습니다. 저의 이전의 삶은 모두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것처럼 이 시간 이전의 모든 우주사(史)도 꿈에 불과합니다. 선의 세계는 미묘한 지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아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거나 나는 행복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반이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붓다 자신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붓다는 성스러운 보리수 아래서 열반에 들고난 뒤 그냥 계속 앉아만 있었던게 아니라 수십년간 중생들과 어울리며 가르침을 펼칩니다. 열반에 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말해, 우리들의 행위가 이제 더이상 그림자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업(業)이라

는 정신적 그물을 짜내줍니다. 우리가 열반에 도달하면 우리들의 행위는 이제 더이상 그림자를 남기지 않게 되고, 우리들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선 여가스틴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게되면 도무지 선과 악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서구에서 불교가 일으킨 반항의 상당부분은 '니르바나'라고 발음되는 이 아름다운 말에 힘입은 바 큼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니르바나라는 말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이 꺼지는 것 혹은 소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도 니르바나에 이르러 욕망의 불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흔히 열반이란 용어는 큰 소멸, 즉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어느 불교학자가 지적하기를, 붓다 당시의 인도 물리학에

나의 수행일기

지난 93년 나는 평생을 잊지 못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었다. 우리회사가 사이판에서 한 호텔 공사를 맡아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서 2차대전때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 다섯구가 발견된 것이다. 현지의 법에따라 현지 공사관계자들이 알아서 처리를 했지만 나는 왠지 계몽적인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현지로 가기로 예정된 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평소애 잘 다니는 진관사를 찾았다. 총무스님께 나의 심정을 말씀드렸더니 "마침 오늘이 지장기도 입재일이니 그 무주교회를 위해 기도해 동참하라"고 하였다. 나는 '이것도 인연이라면 큰 인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장기도에 동참키로하고 2차대전시 사이판지구 전몰 무주교회 신위라는 위패를 단에 올렸다. 국적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50여년의 저편에서 전쟁을 치르다 허망하게 죽어간 사나이들. 그들이 하필이면 내가 주관하는 공사현장에 그 앙상

윤경원 <코레스코 대표>



나의 기도와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여긴다.

경연현장에서의 무수한 경험은 나에게 많은 교훈으로 남는다. 부처님을 믿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사심없이 진실된 믿음으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니겠는가.

내가 주도해서 일군 업체라고해서 내것일 수는 없다. 회사란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뛰어 일군 것이므로 직원 공동소유물인 것이다. 다만 잘못된 일에 대한 최종의 책임자로, 어떤 결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갖는 책임자로 내가 있을뿐이다. 나는 이런 경영관을 부처

"경영비법 부처님 가르침서 찾아"

회사는 직원 공동소유... 사이판에 사찰건립 소망

한 주검을 드러낸 것은 무슨 인연일까를 생각하며 입재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아파하였다.

그날밤 나는 사이판행 비행기를 타고 어느날 보다 열주를 굴리는 손이 뜨거웠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과 현지인 인부들이 다 모아 그 무주교회를 위한 천



남에게 배웠다. 그리고 책임자로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께 그 답을 묻는다. 내가 삼보에 귀의했기 때문이다.

치약산도들 짓기전, 그러니까 부지매임을 위해 땅을 보러 가던 날은 눈이 많이 내렸었다. 원래 눈을 좋아하는 나는 뭔가

일이 잘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소개인과 함께 간 곳이 구룡사와 가깝다는 사실에서 나는 이미 땅을 매입할 인연이라는 믿음까지 생겼다. 그래서 나는 소개인을 따르고 구룡사로 끌고 갔다. 함께 밭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무릎까지 꿇인 눈길을 헤치며 걸어 나왔다. 물론 구룡사 밭당에서 부처님께 치약산도들 건설계획을 고했고 '허락'까지 받았음을 소개인은 알 길이 없었으리라.

내 주머니 속의 영주가 남아 가는만큼 세월의 무상도 크다. 내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 사이판에 절을 짓는 일이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살지만 아직 포교당하나 없는 곳에 자그마한 도량을 짓고 싶은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해도 이런 소망을 위해 조금씩 인연을 키워가는 것이 불자로 살아가는 보람일 것이다.

번역: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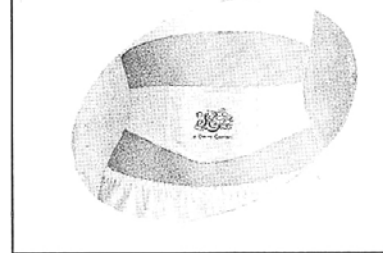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미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유류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시요.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주최: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바라밀간병인 협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부산지부: (051)633-6412~3 FAX: (051)631-3884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하세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아가 엄마의 태동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진(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이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